

# 국힘 전대 컷오프 여론조사 마감...역대 최대 84만명 투표

선거인단 수도권 늘고 영남 줄어  
오늘 본경선 진출자 발표  
매머드 선거인단 변수에 촉각  
당권주자들 막판 표심 다지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은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 마감일인 9일 당원들을 만나며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가 역대 최대인 84만 명에 육박하면서 승패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부산과 재경 동문 모임인 '정조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충북 일대 당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김기현 후보는 국회에서 당 청년위원장들의 지지 선언 회견에 참석한 뒤 서울을 순회하며 당원들과 만났다. 황교안 후보는 언론 인터뷰와 자유현정포럼 강의, 서울 강서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또 천하람 후보는 외부 일정 없이 언론 인터뷰를 소화했고, 조경태 후보는 서울 용산-강서 당원을 만났다. 윤상현 후보는 김포 해병대 2사단을 위문 방문하고 언론 인터뷰 및 서울 지역 당원 간담회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본경선에 진출할 당 대표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등을 발표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3·8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총 83만9569명이다.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한 지난 2021년 6·11 전당대회(32만8893명) 때와 비교하면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은 32.3%에서 37.79%로 늘었고, 영남권(TK·PK)은 51.3%에서 44.78%로 줄었다.

이 전 대표 취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한 20·30·40대 당원 비중은 32.4%이다. 50대 이상(67.6%)의 절대 수준이지만, 2011년 전당대회 때와 비교하면 20%대에서 30%대로 늘었다.

주자들은 선거인단 규모가 커진 상황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두고 '아전인수식'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비주류' 주자군에 유리하게 나타나는 관측이 나온다.

주류 친윤(친윤석열)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오른쪽) 당대표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새로운 민심 새민연 전국대회'에서 사경원 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후보가 '조직표'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거인단 규모가 늘고 인적 구성에 변화가 커지면서 그 위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김 후보 지지 진영의 '오더 투표 강점'이 상당 부분 희석되면서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이 약한 주자들이 파고들 공간이 커졌다는 것이다.

후보 등록 전후로 일반 국민과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와 얽지락뒤치락 하며 치열한 '양강 경쟁' 중인 안철수 후보나, 청년층을 결집하며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 등이 기대하는 대목이다. 안 후보 측은 "선거인단 규모가 커질수록 민심과 당심 사이 괴리는 좁아지는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반면, 100% 당선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투표율'이 핵심 변수인 만큼, 선거인단 숫자가 늘어났다고 김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역·연령별 분포를 두고서도 주자들은 각자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안철수(오른쪽) 당대표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에서 열린 청초포럼에 참석해 참석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재 이상민 탄핵의결서 접수 심리 착수...180일 이내 결정 선고

적시 처리사건으로 집중심리 할 듯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현재는 이날 중으로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탄핵 사건은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현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긴 하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라는 일종의 '비상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가 심리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

론이다.

전례를 보면 대통령 탄핵 사건은 2~3개월(노무현 전 대통령 64일·박근혜 전 대통령 92일) 만에 처리돼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다른 헌법재판에 비해 일찍 결론이 도출됐다.

이 때문에 현재가 이번 탄핵 사건을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적시 처리 사건은 처리 지연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된다. 재판부의 집중 심리가 이뤄져 선고 기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때 활용됐다.

현재 관계자는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린다고 하면 떠들떠들 잡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잡아 집중 심리하는 주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9명 중 이석태·이석태 재판관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사건 심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데 이석태·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 없이 본회의 표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곧장 임명한다. 전·후임 교체기라 해도 현재 법상 재판관이 7명 이상 있으면 사건 심리가 가능해 헌법재판 절차가 중단될 여지도 크지 않다.

앞으로 열릴 변론과 재판관 평의에서는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석 부실 대응과 관련해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오가게 된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이상민 탄핵안 가결' 의도된 침묵?

직접 언급 없이 절제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헌정사 초유의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절제된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탄핵안 가결 후 20여 분만에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한 줄의 입장문만 냈다.

야당의 '의회 독재'라고 성토했며 격양된 참모진 내부 분위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응으로 읽혔다.

전날 직접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내부 회의와 보고 등 비공개 일정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처리는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침묵'은 대통령실의 비장함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어제 국회 상황은 정무수석실과 여당 원내대표단이 보고한 대로 흘러갔다"며 "윤 대통령이 아주 차분하게 지켜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과 면담하기 직전 탄핵소추안 가결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후 유호림 서울대 총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하는 행사 때까지 탄핵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이들과 교육개혁,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비공개 환담이 예정을 넘겨 1시간 이상 이어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중산층 난방비 지원 거리두는 與...대통령실 "서민지원 우선"

대통령실은 9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난색을 보인 것과 관련, "가장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상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책에 있어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실제로 현재 가능한 게 있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가능한 게 있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당장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산층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중산층 지원이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재정적으로 어디까지 (지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정 말고도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경제수석의 서민 브리핑 내용과 동일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